

통일선보

무소속대변지 제40호 [루계 제2718호]

주체 111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음력 9월 6일

철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가 9월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영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올해 농사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농업정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문제를 주요의정으로 토의하고 중요 결정을 채택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당면한 과업과 탈곡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시키며 량곡수매와 공금사업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량곡정책집행을 저해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할 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본사기자
--	---	--	---	---	---	------

나라의 농업도에 펼쳐진 희한한 농기계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황해남도에서 배려하여주신 농기계전달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황해남도에서 배려하여주신 농기계전달모임이 9월 25일 해주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광장과 주변도로는 우리 식의 현대적인 농기계들로 꽉 들어차 황해남도가 생겨 처음보는 장관을 펼쳤다.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전달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인민생활문제를 푸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신심을 가지고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농업부문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군수공업부문에서 우리 식의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기본복합지대인 황해남도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해주시의 광장일대에 펼쳐진 농기계바다는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황해남도를 비롯한 온 나라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일군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며 자존, 자립, 전면적발전의 기치높이 새로운 변혁적실체들을 끊임 없이 이루어내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국가의 필승의 기상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황해남도안의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이 5개년계획수행의 사활이 달려있는 올해 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알곡증산성파로 당중앙을 보위하며 모든 농촌마을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전국의 앞장에 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러 토론들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황해남도의 농사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온 나라가 최악의 보건의 위기를 겪는 시기에도 사랑의 불사약을 거듭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진정은 오늘날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아버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결정체인 새롭고 높은 농기계들을 받아안은 걱정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우리 농민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키워주시며 사회주의농촌진흥의 밝은 미래를 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도안의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성다해 받들어 싣로써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농업

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넘쳐 구호들을 힘차게 외쳤다.

모임이 끝난 후 참가자들과 해주시민들은 은정어린 농기계들을 감격속에 돌아보았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이 드넓은 전야를 뒤덮고 기계로 흥겹게 농사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그려보며 황남인민들은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 노래와 춤판을 펼쳤다.

본사기자

황금벌에 넘치는 격정의 파도, 새 농기계들의 등음소리

